

#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롱-숏 아이디어

김영일 ampm01@daishin.com

2015.10.30

## 자사주 매입 강도 차이를 이용한 롱-숏 아이디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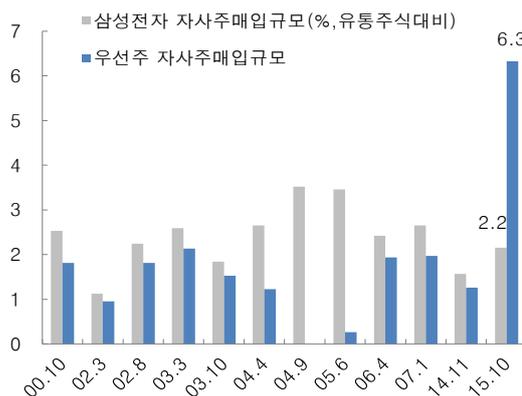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. 금번 자사주 매입의 특징은 우선주를 대규모로 매수한다는 것이다.
- 페어트레이딩에 이용되는 스프레드 잔차는 두 종목 시계열의 추세 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이를 통해 페어트레이딩 가능 여부와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.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간 스프레드 잔차는 균형점(0)에 근접한 상태로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페어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.
- 하지만, 이번의 경우 이례적인 수급으로 페어트레이딩이 가능할 전망이다. 스프레드 잔차는 7%수준(올해 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(보통주(숏)&우선주(롱)) 기대수익률은 10%, 보통주 괴리율은 90%가 목표다.
- 이유는 다음과 같다. (1) 보통주 매입 규모(유통주식대비%)가 과거 평균 수준인 반면 우선주 매입 규모(유통주식대비%)는 6.3%로 과거 평균(1.3%)의 4.6배에 달하고 (2) 우선주 일평균 예상 매입 규모(2만주)는 최근 60일 평균 거래량인 5.4만주의 38% 수준으로 주가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### 통계적 관점에서는 페어트레이딩이 매력적이지 않지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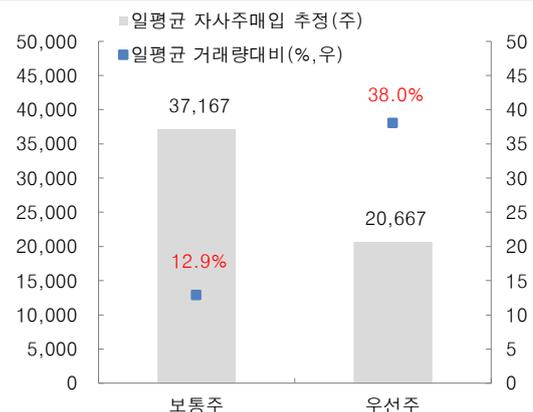
자료: Wisefn, 대신증권 리서치센터

### 이례적으로 우선주 대규모 매입



자료: Wisefn, 대신증권 리서치센터

### 우선주 일평균 매입수량 거래량의 38%



자료: Wisefn, 대신증권 리서치센터

### [Compliance Notice]

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